

# 인간과 환경을 위한 건설, 풍림산업

풍림산업은 1954년 설립 이래 “순한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건설문화를 창조한다”는 기업이념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정진해왔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기업 환경 속에서도 건설분야의 외길을 걷는 종합건설업체로서 내실있게 성장해 왔다.

이달의 회원사 탐방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 디지털화에 따라 첨단 기술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확대에 힘쓰고 있는 풍림산업을 짚아가 보았다. <취재 / 박 병 기 기자>

##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풍림산업(주)(대표이사 이필웅)은 도로, 건축, 플랜트 등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인 기간산업 및 신도시 건설사업, SOC사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으로서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고, 해외로는 1976년 중동진출을 시작

으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속의 풍림을 인정받으며 건설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심어 왔다.

80년대에 들어서부터 고도기술 산업 시대와 세계 단일시장에 대비한 토탈엔지니어링 시스템(Total Engineering System)과 종합건설

업 체제의 구축에 노력해온 풍림은 90년대에 이르러 그린(GREEN) 시대를 대비한 환경산업, 인간생활의 풍요로움과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산업까지 기업의 사업능력을 점차 확대해 왔다.

풍림은 토목, 건설, 플랜트, 주택사업에 이어 철구, 건재, 환경, 엔지니어링, 성능개선, 레저에 이르기까지 건설분야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풍림산업은 고객만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초를 세우는 기술개발에서 철저한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품질제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관리체제는 자재



서울 돈암동 풍림아파트

의 선별에서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공사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통한 사전점검 외에도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통해 완벽한 고객만족으로 실현되고 있다.

한편 풍림은 '깨끗하고 신선한 회사', '친절하고, 실력있고, 겸손한 풍림문화'라는 경영방침 아래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로 남다른 신뢰를 쌓아왔으며, 이러한 기업문화는 경영전반 있어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 최고의 전문기술, 축적된 노하우

풍림산업은 건설 반세기를 통한 최고의 전문기술,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토목분야에서 도로, 교량, 단지조성공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토목분야 주요실적으

로는 강진국도, 공주국도, 남해대교, 대구지하철, 방화대교, 신정동 차량기지, 서울의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섬진강교, 수인고가차도, 신공항 송수관로, 영동고속철도, 용문국도,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이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에 미학적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고감도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외형 및 기능에서 모두 앞서는 최고의 건축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건축에 가장 먼저 미학적 예술건축의 개념을 도입한 풍림의 건축철학은 세상안에 또 하나의 세상을 건설한다는 확고한 실천력에 의해 한층 그 가치를 발휘한다. 외형적 가치 뿐 아니라 대형 건축물에 특히 유감없이 발휘되는 고감도 시공력과 고도의 기술력이 그것이다.

이 분야의 주요 실적으로는 2002 월드컵 제주경기장, 스위스

그랜드 호텔, 88올림픽기념상징조형물,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부천시청사, 부천종합운동장, 목동지하철, 양천구청역, 일산월마트, 태평백화점 등이 있다.

그리고 플랜트분야에서는 첨단 기술력과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정유소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 국제적인 대형 건설현장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와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탱크 건설 부문에서 태국 국영공장의 70만 배럴 대형 탱크 6기를 포함한 58기 탱크 총 770만 배럴 공사와 사우디의 대형 탱크 6기를 포함한 16기 총 700만 배럴 공사를 폴 턴키 베이스로 수주하여 설계부터 자재 구매는 물론 완 벽 시공을 수행하여 풍림의 기술력을 다시금 전세계에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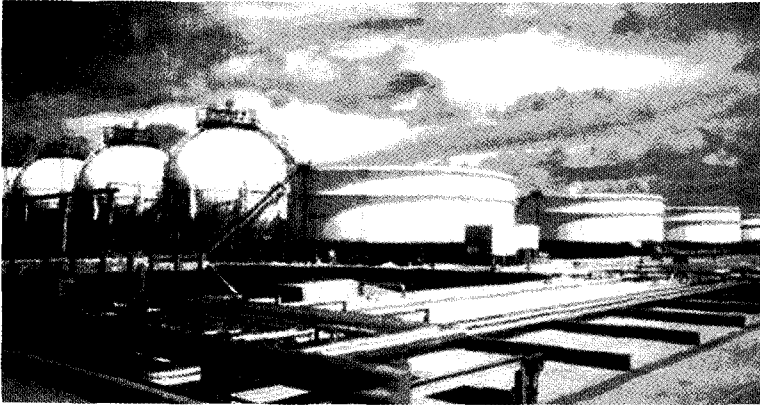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경력으로 사우디 ARAMCO 등 여러 발주처의 GOSP, NGL Plant, Sulfer Utility,



섬진강교



공주국도



태국 라웅정유소 건설공사

POSM, Fertilizer 등 다양한 시공경험을 쌓았으며 국내의 현대대산(극동) 정유공장, 삼성종합화학 공장, 건설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80년대말 해외 플랜트 공사의 불황기 속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모빌 정유소, 두풍 석유화학 공장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꾸준한 저력을 과시하여 현재 세계적인 업체들과 나란히 플랜트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 철구사업 등 건재사업도 활발

한편 반세기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완성된 철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의 기본구조로만 보지 않고 건축·토목·첨단의 플랜트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예술적인 감각까지 고려되고 있다.

풍림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완벽한 철구조물을 공급하고자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21세기 철구사업의 선두주자, 풍림산업은 품질보증인증체계(ISO 9001)와 공장인증체계 유지관리, 고품질검사를 통해 최고의 품질 확보로 견고하고 차별화된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다.

풍림의 철구사업공장은 지난 93년에 설립되어 철골, 교량 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3만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제주 월드컵경기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청사, 보령 복합화력발전소,

용문 용두간 도로 강교공사(용문교) 등이 있다.

이 회사의 철구제품은 AISC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Inc.)의 인증을 획득(2000. 8.3)하였는데 미국철건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장 품질인증 제도로서 철구조물 생산공장의 인력, 조직, 경험, 절차, 지식, 장비 및 능력 등의 관리능력을 검증(심사)받는 것이다. 풍림은 철구공장의 인증 획득으로 명실공히 동종 업계의 선두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경량성, 단열성, 내화성, 차음성, 시공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ALC를 생산하고있는데 이것은 미래 건축자재로 주목받고 있는 다기능 첨단 신소재로 1989년 스웨덴 INTERNATIONELLA SIPOREX AB로부터 제조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 블럭 및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판넬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건물의 외벽 또는 내벽 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방수, 방균 ALC(WATERPROOFED & ANTI-FUNGOUS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를 개발, 특허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어떤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풍림은 하수처리의 신기술인 P/L PROCESS를 개발, 각종면허 및 특허취득으로 환경산업분야에서 한발 앞선 기술력을 선보여왔으며,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분뇨종말 처리시설 면허 취득 등 창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미래 건설에 앞장

서 온 풍림은 환경산업에의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노력으로 진보된 개념의 환경 신기술 P/L Process 를 개발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4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P/L Process는 국내의 합류식, 합병식, 분류식 하수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며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및 부영양화 우려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질소 동시제거 고도하수처리 신기술로서 우리의 환경기술을 한차원 높인 풍림의 자랑스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시설에 비해 절감 효과가 6~9% 이상이고, 유지관리비도 매우 저렴한 P/L Process 는 경제적으로도 그 월등함을 인정받고 있다.

## 고객중심 아파트분양 전략

주택분야에서는 풍림산업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뿐 아니라 첨단 시설로 더욱 편리한 미래 생활공간을 선보이며 우수한 시공력과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관리 통해 생활의 편리함과 문화를 담은 영역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올해 풍림산업의 주택사업 수주전략은 크게 재건축, 재개발 수주경쟁력 강화와 승계시공 공사로 나뉜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주만을 위한 저가 수주 또는 브랜드를 내세운 과도한 공사비 책정보다는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이고 정직한 공사금액 책정에 두고 있다.

또한 현장 특성에 따라 조합원과 시공사에 모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과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력으로 공사기간을 제외한 제반 인허가 과정을 단축, 사업기간의 혁신적인 단축으로 조합원의 기간이익 창출한다는데 두고 있다. 실제로 공통동 하계1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사의 계획 보다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다음으로 승계시공 공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타 경쟁사에 비해 많은 승계시공 경



제주도 풍림콘도 전경



남촌 1, 2차 풍림아파트



의정부 장암 풍림아파트

험으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경쟁사에 비해 빠른 사업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체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승계시공 경험은 풍림의 자랑이다.

한편 풍림의 올해 분양전략의 첫 번째는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인 분양가의 책정이다. 투기조장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모델,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 아파트

는 분양가격 맞춤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감자재의 경우도 고객의 취향에 따라 월넛, 체리, 메이플 등 선택할 수 있게 조정(마감톤 선택제)하며 각종 서비스품목(가스오븐렌지 등) 제공시 다양한 품목중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전략이다.

###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

풍림은 21세기 첨단기술 확보의

건설의 추구로 흥은동 풍림아파트는 국내 최초 그린빌딩 인증을 취득했으며 단지내 주변 현황과 단지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의 분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가격, 획일화된 마감을 지양하고 고객의 자금여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조건, 이자 납입조건, 분양가격 등을 차등적용하

지로 새천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특히 정보화 시대, 디지털화에 따라 첨단 기술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화를 확대해온 데 이어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확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사업의 주택사업분야와의 접목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 깨끗한 환경, 행복한 미래 건설을 추구하고 앞서가는 건설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풍림은 21세기 첨단기술 확보와 함께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토목, 건축, 플랜트, 철구사업분야 등 당사의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법률 및 규정, ISO 14001요건을 준수하고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보호에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21세기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와 문화,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며 품질과 기술을 통해 한차원 높은 고객만족과 합리적인 경영,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21세기 진정한 지식기반 기업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주)